

S-Oil, 성장전략 표류 “저평가”

한화증권, 제2공장 건설 지연으로 ... 세계 화학기업 주가 상승세

한화증권은 S-Oil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원을 제시했다.

차홍선 연구원은 “PetroChina의 주가가 2주 동안 30% 가량 급등하면서 GE(General Electric)를 앞지르고 시가총액도 세계 2위로 등극했다”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2위는 ExxonMobil(482조원)과 PetroChina(396조원) 양 석유·정유기업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화학기업 주가 상승률이 최근 높았던 주요 기업들은 석유·정유기업들인데 유독 S-Oil 주가는 2주 동안 단지 3.15% 올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평가 상태인데도 S-Oil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제2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성장 전략 표류에 따른 시장의 실망에 있다”면서 “그러나 경영진이 자사주 매각대금과 잉여현금으로 앞으로 성장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기에 성장전략이 가시화되면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 저평가 상태를 탈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3월 지급된 8300원의 특별배당금 외에 5125원의 고배당금을 2007년 말 일시에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배당수익률은 6.2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9>